리영춘 그림

95

3 -MAY 2 6
Copy ____ 1959

침략자를 물리치고

사회주의 건설을 보위

활살

2월호
1958 (87)

승리자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

—우리의 이 성과는 당신들의 행복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최 영근 그림

—우리들은 미국놈 덕분에 쪽박이나 차게 됐소

우리 나라는 땅이 몰려서

김 현 석

북태서양 동맹 리사회 회의가 1957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불란서 샤이오 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권세와 향락의 유령들이 낡은 불란서 궁전의 퇴락한 복도와 방마다로 어슬렁 거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20세기 신판 유령들이 우쭐대고 있다.

모쓰크바 선언에서 명확히 지적된바 제국주의 진영 내부의 와해상이 여기서도 여지 없이 들어났다. 아메리카의 딸라 지휘봉이 서방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를 뽑아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말았다. 덜레스는 이제 와서는 연단에 위엄 있는 목소리로 뜨짓 뜨짓 이야기하게 되지 못하였다.

목소리는 자주 찢어지게 되였으며 노발대발, 한참씩 떠들어 대다가는 경련적으로 쿨룩 거리게 되였다.

《어디 말을 들어 먹어야 하잖냐!》 그럴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쏘련 인공 위성이 둘씩이나 돌아 가고 있지 않은가 쏘련에는 과학원 유성간 교통 위원회가 존재한다. 쓰따뉴꼬비치 교수는 1년반 내지 2년 후면 달 나라 려행이 가능하다고 공식 언명하였다. 달이 우주 비행선의 비행장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푸카나베랄에서는 야구 볼만한 뱅가드를 까올리다가 그나마 허풍쟁이가 되고 말았다.

사태가 이리고 보니 샤이오 궁전에 모인 《신사》 제씨들의 심리 상태가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는 노릇이 아닌가 미국의 로케트 기지 설치를 노르웨이 게르하르드센 수상이 절대 반대해 나섰다. 덴마크의 한센 수상도 역시 절대 반대해 나섰다. 우금까지 아메리카 전쟁 악단의 제 1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데나워까지도 미국의 로케트 기지 설치에 대해서만은 불평을 늘어 놓게 되였다.

대륙간 탄도 로케트가 쏘련의 소유물인 오늘의 엄연한 현실적 조건하에서 한부락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구라파 한 땅'덩어리 우에서 미국의 불작란으로 말미암아 불똥이 튀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을 당할 자는 우선 자기들이라는 것을 이 미욱한 아데나워까지도 알고만은 있는 것이다. 천상 천하에 숨을 곳이란 한 평방 메터도 없다.

아이젠하워, 덜레스, 백악관 총 동원의 력량 집중으로 내흔드는 로케트 기지 설치안이 샤이오 궁전의 뭇 유령들과 함께 허위적 거리고 있을 때 눈을 말똥 말똥, 눈치만 살피고 있던 화란 대표가 《내게 묘안 있소!》하고 연단에 올라 내 놓은 제의란 것이 다음과 같은 것이였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 싶이 우리 나라의 땅은 겨우 제방으로 바다'물의 침수로부터 막아져 있으니만큼 아주 무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안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의견 같애서는 땅이 아주 굳은 불란서의 알프스산 우에 로케트 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화란 대표의 《묘안》이 발표되자 마자 박수 환호하는 뭇대표들 중 특히 서독, 벨기 대표들이 《다 잘 아시다 싶이 우리 나라 땅도 화란 처럼 아주 무릅니다. 불란서 알프스 산상에서의 미국 로케트 기지 설치안 절대 찬성입니다》라고 안경을 고콥에까지 미끄러 트릴 지경으로 입을 흔들어 댔다. 흠찟한 것은 불란서 대표였다.

《흥! 자신은 유도탄의 목표물로 될 것을 우려하여 그것을 받아 들이기를 싫어하면서 그것을 불란서 령토에 설치하라고…》

영국의 《데일리머러》지가 꽤 정확히 썼다.

《덜레스를 전'적으로 지지한 것은 맥밀란 뿐이였다. 영국과 토이기만이 미국 로케트 기지를 조속히 설치할 용의가 있다고 확약하였다》

한편 불란서의 《리베라숑》지도 면바루 썼다.

《나토 리사회 회의에서 유도탄 기지 설치 계획이 통고되였을 때 회의 참가자들은 이를 털끝만큼도 환영하지 않았다》

대소의 전쟁 나발수들로서 생사를 같이 하리라던 북태서양 동맹자들의 형편이 이러하거늘 전 지구적 범위에서 아메리카가 당하고 있는 망신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최근 미국의 여론 연구소 소장 디치트가 구라파, 중동지역 려행을 끝마치고 귀국하였다. 《뉴욕 포스트》지 기자 월레스가 《왜 미국은 세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가?》라고 디치트에게 질문 하였다. 다음은 디치트의 대답이다.

《나는 어느 곳에서나를 물론하고 극히 로골적인 반미 감정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미국의 대외 정책으로부터 우리의 식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비난의 대상으로 되여 있다. ……미국인들이 쓸데 없이 우쭐대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 남의 등을 쳐먹고 사는 자들은 먹는 모습까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조선 인민군은 세계 인민을 경탄 시켰다

송 현 종

세계 인민은 조선 인민군을 영웅적 군대, 전설적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너머나도 당연한 일이다. 세계 《최강》을 허장 성세하던 미국 침략 군대를 비롯한 16개국 무력 간섭자들을 격멸 소탕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빛나게 지켜 냈기 때문이다. 조선 인민군은 자기의 영웅적인 투쟁을 통하여 미국인들이 그렇게도 요란스럽게 떠버리던 미국 군대의 《불패의 전통》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선 전쟁 이후 세계 인민은 미국 군대를 《허울 좋은 종이 범》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청소한 조선 인민군이 《최강》을 떠버리던 미국 침략 군대를 보기 좋게 녹여 낸 몇가지 전투들을 회상하여 보자.

미국 군대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모든 힘을 다해 길러낸 리 승만 괴뢰군이 전쟁 도발을 앞두고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사리원에서 먹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겠다》던 광대 나발이 맥없이 쪼개져 버리자 당황 망조한 미군은 파죽지세로 남진하는 인민군을 막아 내려고 유•엔의 기'발을 도적하여 대전에다 소위 《난공 불락》의 방어를 쳤다. 미국인들은 세계에 선전하기를 미국 군대에서도 가장 정예한 24 사단은 대전에서 인민군대의 진격을 저지시키고 일로 북상할 것이라고 호언 장담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성과적 계획》은 불과 이틀'동안의 전투에서 박산이 났다.

조선 인민군은 대전 전투에서 정예를 자랑하던 미군 24 사단을 독안에.든 쥐잡듯 잡아 치웠을 뿐만 아니라 사단장 띤 소장을 생포하고 계속 노도와 같이 진격하여 락동강 동남 쪽에 원쑤들을 압축하였다. 이렇게 되니 눈알이 뒤집힌 미국 침략자들은 참패를 만회해 보려고 불야 불야 태평양 함대와 지중해 함대의 일부까지를 끌어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서둘렀다. 상륙 작전을 앞두고 맥아더는 백악관에 보고하기를 사흘 동안이면 서울을 완전히 점령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실속 없는 허장 성세였다. 우선 미군은 인천에 발톱을 거는데만 사흘이 걸렸다. 청사에 길이 빛날 리 대훈 해안포 중대는 조국 앞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쳐 불과 4문의 포로써 500대의 비행기, 300척의 함선, 4개 사단의 상륙 집단을 맞받아 싸워 인천항의 전초소인 월미도를 사흘 동안이나 방어해 냈다. 그리하여 미군은 겨우 2주일 만에야 서울을 강점할 수 있었다.

서울을 강점하고 일로 북상의 광상곡에 도취한 맥아더는 땅'바닥에 떨어진 위신을 취켜 세워 보려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축배를 신의주에서 들겠다고 세계에 자랑하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군은 형제적 중국 인민 지원군과의 협동하에 반격을 개시한 불과 두달만에 수만명의 미국 및 잡동산이 고용병들을 소탕하고 38선 이북 지역을 완전히 해방시켰다. 미군의 허약성을 백일하에 폭로 당한 백악관은 이 참패가 마치 맥아더에게 있은 것 처럼 보이려고 맥아더의 목을 자르고 악명 높은 인간 백정 릿취웨이를 조선 전선에 출동시켰다.

조선 전쟁에서 일획 천금을 꿈꾼 릿취웨이는 소위 《기술적 우세》를 내두르면서 전격전의 나발을 요란스럽게 불어대며 《초토화 전술》《쐐기 전술》《춘기 공세》《추기 공세》 등 벼라별 망종을 다 부리고 나중에는 《세균 부대》까지 동원했으나 바위에다 골받이 격으로 그때마다 조선 인민군의 철벽 같은 방어진 앞에 풍지 박산이 되고 말았다.

그럴 수 밖에 없다! 원쑤들은 1,211 고지를 비롯한 우리의 방어진에다 일일간 평균 3만 어발의 포탄과 폭탄을 퍼붓고 하루에도 수십차의 돌격을 발악적으로 해왔으나 영웅적 조선 인민군은 대중적 영웅주의와 전설적 완강성으로 원쑤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다. 19세의 젊은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개척한 리 수복 영웅을 비롯한 우리 인민군 사병들을 정복할 힘은 세상에 없다. 그리하여 1,211 고지 앞 골짜기는 1만 5천명의 미국 침략군과 고용병들의 죽엄으로 채워졌다. 원쑤들은 이 골짜기를 《함정'골》이라고 부르며 올라가는 고용병마다 모조리 천당으로 가고마는 가칠봉을 가리켜 《상심령》이라고 불렀다. 이것뿐이 아니다.

허 능택 그림

조선 인민군의 영웅적 투쟁은 미군 침략 군대의 《세계 최강》에 관한 신화를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산산 쪼각을 냈다.

《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는 미국 장군들은 조선 전쟁을 이르킨 첫날부터 소위 《하늘과 바다와 땅으로부터》라는 북을 귀청이 떼도록 치며 날뛰였다 그리하여 미국인들은 《하늘의 요새》 비 29를 날렸고 미국에서 새로 만든 각종 분사식 전투기들을 죄 동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자기 비행사들에게 조선에서의비행은 전투가 아니라 련습이라고 오만하게 뇌까렸다. 그도 그럴직한 장담이였다. 기실 침략자들의 버릇대로 《세계 최강》을 호언하던 일본 침략 군대도 《하늘의 요새》에는 손찌검질을 못했고 미국 공군의 《강대성》은 차마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최신형》 분사식 전투기를 띄워 보내던 미국 장군들의 기염에 있어서랴?!

그러나 원쑤들은 크게 오산했다. 조국의 영예를 위해서는 두려움을 모르는 우리의 슬기로운 매들은 《하늘의 요새》비 29를 비롯한 미국제 《최 신형》 분사식 전투기들을 세계 인민의 면전에서 보기 좋게 불살라 떨구었다. 우리의 용감한 매들은 자기들의 지혜롭고 헌신적인 투쟁으로써 하늘로부터의 미국 침략자들의 어떠한 침공도 제때에 무찌러 낼 수 있다는 것을 영예로운 조국 앞에 보여 주었다.

바다에서도 조선 인민군은 세계 인민들을 경탄시켰다. 유명한 주문진 앞 바다의 가렬한 해전에서 조선 인민군 해군 어뢰정대는 보통 상식으로는 상상 조차할 수 없는 과감한 돌격으로 미국 중순양함 《빠르찌모르》호를 깜쪽 같이 물'속에 수장해 버리고 경 순양함 1척을 짓부셨다. 우리 해병들의 영웅적 투쟁은 실로 세계 해상 전투 사상에 류례 드문 기적적 금자탑으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조선 인민군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적 살상 포로 1,093,839명 (그중 미군 397,543명) 적 전차 격파 2,690대, 자동차 격파 4,111대, 비 29를 포함한 적 비행기 격추 5,729대, 격상 6,484대 적 함선 격침 격파 257척 이라는 빛나는 력사적 승리를 달성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인민의 참된 무장력인 조선 인민군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빛나게 수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전적 미국 침략자들에게 다시는 함부로 사회주의 진영 국가를 건드릴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주었다.

이러한 영웅적 조선 인민군을 어찌 세계 인민들이 경탄하지 않으랴!

혈연적 관계

—내 아들도 전선에 나갔다네…　　—저의 아버지도 농사를 짓는데요…

홍 종호 그림

자랑스러운 이야기

△외 투

전사들은 전호에서 잠들고 있다. 오직 상등병 리태식만이 외투가 없다. 방금 있은 적기의 폭격에 날아난 것이다.

소대장은 자기의 외투를 잠든 태식에게 가만히 덮어주고 자기는 맨 몸으로 전사들 속에 끼웠다.

헌데 좀 있다 소대장이 깨여나 보니 웬 일인지 자기우에 외투가 덮여 있다. 돌아보니 그것은 태식 상등병이 도로 갖다 덮어준 것이였다. 소대장은 다시 외투를 태식이가 깨여나지 않게 가만히 덮어 주었다.

그러나 외투는 또 소대장에게로 왔고 그러면 또 소대장은 그것을 태식에게 갖다 덮어 주었다. 그러나 끝내 태식에게 못견딘 소대장은 감격하여 태식을 끌어안고 말았다.

〈태식이! 이 외투는 둘이 함께 덮는 수 밖에 없군〉

△혼난 이야기

5차 전역의 두번째 전투인 5월 21일 공화국 영웅 홍기서 동무에게 포로될번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쳐온 국군 3사 한 장교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물었다.

《자네 이번 죽을번 했다면서?》

《말 말게, 글쎄 인민군대와 중국 공산군에게 포위될번 하면서 사단이 겨우 5백명 가량 남아서 강릉 방향으로 퇴각 하다가 비가 와서 산파 부락에 산재해서 좀 숨을 돌리려는 데 돌연 우리 사단 한가운데 한 인민군대 병사가 나타나더니 《여러분, 나는 인민 군대다. 당신들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 포위 됐으니 안심하고 그자리에 앉으라》하는게 아니야, 이렇게 혼자 대담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말하는데 누가 곧이 안들겠나. 우리들은 모두 속구 더러는 앉고 더러는 주춤거리는데 그 인민군대가 《부대를 령솔하는 책임자가 누구야?》하드만. 그러자 우리를 지휘하던 부사단장이 앞으로 나갔지. 그런즉 그 인민군대는 《당신이 책임잡니까?》하며 글쎄 부사단장에게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게 아니야. 부사단장은 맥 없이 손을 내밀드만. 그 다음 인민군대가 하는 말이 《나는 인민군댄 데 당신도 아시겠지만 강릉 계선을 인민군 한개 사단이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는 당신들을 완전 포위하고 내가 먼저 올라 왔습니다. 이제는 어디로도 빠질 수 없으니 당신들은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하고 제법 시침을 떼고 말하는거야. 부사단장은 정말인줄 알구

《우리는 투항할터이니 대오를 집결시키겠습니다》하더니 우리 보고 《속히 집결하라》고 고함치드만. 이 고함 소리에 사방 널려 있던 부대들이 집결했지. 그때 산밑에서 난데 없는 따발총 소리가 나는게 아니야. 그때에야 우리는 속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나 벌써 사기가 죽었는데 어떻거겠나. 총이구 뭐이구 다 집어 던지구 걸음아 날 살려라 하구 도망치기 시작했지. 그러자 그 인민군대가 막 갈기드만. 그래서 숱해 죽고 포로 당하고 몇 사람이 겨우 살아 도망쳐 나왔네》

△리해할 수 없다

미군 《에프 81형》 전투기 비행사 스미스 소좌는 세번째 강하를 하며 고사기관총 진지에 기총소사를 하다가 비행기의 가소린 탕크에 총알을 맞았다. 비행기는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한번도 락하산을 타고 내린 일이 없는 것을 자랑하여 오던 스미스였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할 재간이 없었다.

그런데 녀성 인민군 병사에게 호송되여 고사기관총 진지에 온 그는 머리를 기웃거렸다. 남자들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모두 녀성 군인들 뿐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맹렬히 공격해 됐는데 저 녀자들이야 비행기를 정면으로 맞받아 싸우지 못했을텐데?〉

스미스는 자기를 호송해 오던 녀성 병사에게 물었다.

《그래 나를 떨군 사람들은 어디 있소?》

《바로 우리들이요!》

《노오, 노오! 그것은 거짓말이오》

스미스는 그 이튿날 진지에서 바로 그 녀성 병사들이 고사기관총으로 미군 전투기들과 정면으로 싸와 《에프 81형》 전투기를 또 한대 격추시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서야 자기 비행기도 이 녀자들이 격추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단 한가지만은 아무리 해도 리해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조선의 이 어린 처녀들이 심지어 평시에는 수집어까지 하는 이 처녀들이 비행기를 맞받아 싸웠는가 하는 것이였다.

리 운 봉

영웅적 승리의 기록

력사에 없는 사냥' 군조

침몰하는 미군의《강대성》

함정' 끝에서의 상봉

—난 《하거공세》 때 왔는데 자넨 언제 왔나?
—난 《추기공세》 때 녹았네!

—포위하자!　　—포위됐다

조 명식 그림

괴뢰군의 등급 사정

경력을 봐서도 쓸만 하군

박 승히 그림

치욕의 국군 살이

류 계 환

기괴한 《공장》

불란서 기자 루시오파타르는 론산에 있는 《륙군 제 2 훈련소》를 참관하고 이것은 한개의 괴상한 《공장》이라고 썼다. 여기서는 매일 600명의 사병을 《생산》해 내고 있으며 동시에 600명의 농민을 대포'밥의 원료로서 실어 들이고 있다.

공장의 관리인은 《국방부》 당국자들이다. 그러나 배후에서 실제로 그것을 조종하는 자는 월가의 무기 상인들이다. 많은 농민들을 실어 들이는 것은 바로 그들의 욕심인 것이다. 많은 《현지군》 즉 총알 받이 고용 군대가 필요한 무기 상인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러한 방법으로 군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곳에서는 96일 동안에 한개 농민을 병정으로 만들어 내는데 그 방법은 대단히 특수하다.

《복보 전진 훈련》의 경우를 례로 들어 보자 훈련장의 한쪽 끝에서는 4대의 기관총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병사들은 그 밑을 기여 간다. 그는 살기를 그만두지 않으려거던 머리를 쳐들어서는 안된다.

실탄 사격하에 7분 이내에 700메터 구간에 설치된 16개의 장애물을 돌파 해야할 경우도 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례사이고 사람들은 무시로 죽어 가지만 어째뜬 96일 동안에 살아 남은 사람들은 부대에 배치되여 이때부터 정식으로 치욕의 《국군 살이》가 시작된다.

현대의 노예

괴뢰군의 규률은 흔히 《기압》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억압과 구타와 고문이다.

지난해 이른 봄에 괴뢰군의 어떤 2등 상사는 자기 대원 1명이 휴가에서 늦게 돌아 왔다는 리유로 전체 대원 25명에게 군복을 입은 채로 깊은 강물을 건느도록 강요하여 1명을 사망케하고 4명을 기절케 하였다.

병사들은 완전히 무권리하고 극심한 훈련과 로역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은 아직 구체적 임무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는 반드시 사단을 위해서 돈'벌이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정보망과 《전우조》의 조직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다. 특무의 눈초리는 어디에서나 번뜩이고 있다. 《중대장》 이상에게는 광범한 징벌권이 부여되여 리해 관계에 저촉되면 《명령 불복종》이란 구실 밑에 병사들에게 함부로 징벌을 가하고 있다.

루시오 파다르는 괴뢰군을 가르켜 《그들은 바로 노예》들이라고 하였다.

밥으로 6홉

괴뢰군 병사들에게서는 배고픔 설음이 언제나 떠나지 않는다. 괴뢰군 식사는 원래가 조악한 데다가 사단에서 짤라 먹고 련대에서 뜯어 먹고 또 대대 중대 소대에서 벗겨 먹고 병사들에게는 차례지는 것이 거이 없다.

어떤 괴뢰군 병사가 《동아 일보》에 투고한 글 가운데서 《주식은 쌀로 6홉이 아니라 밥으로 6홉》이며 부식물은 《물에 약간의 된장과 소금을 가한 것에 몇 쪼각의 무를 띄운 국 세그릇》 뿐이라고 썼다. 이것이 괴뢰군 병사들이 말하는 이른바 《나이롱국》(나이롱처럼 투명하다는 말) 인데 무'쪼각 대신 콩나물을 띄우면 《도레미 탕》이된다. 나머지는 도중에서 짤리우는 것이다. 실례로 어느 한 중대 내에서는 매월 중대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30근 전부와 두부 500모(천모중에서) 그리고 일부 건빵 통조림류를 중대내 장교들과 본부 하사관들이 돌아가며 잘라 먹었다.

하사관들은 건빵을 훔치지만 장교들은 큰 것에 손을 댄다. 병사들 속에서는 《중사 상사는 건빵 도적놈 소위 중위는 권총 도적놈 소령 중령은 군수품 도적놈 소장 중장은 짚차 도적놈》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병사들에게 기아를 강요하면서 사복을 채우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장교들을 극도로 저주하는 말이다.

만연하는 염전 사상

하루의 힘에 겨운 고역을 끝마치고 병실에 돌아와서 병사들은 식탁도 없이 식사를 끝내고는 가마니를 깐 협애하고 음산한 반토굴 속에서 군복을 베개 삼아 새우잠을 이루니 꿈인들 호화롭기를 바랄 수가 없는 것이다.

저급한 식생활 고된 로역 불량한 병실 생활을 위협하는 강압적 규률 노예적 무권리 그리고는 결국에 가서는 개죽엄을 강요 당하는 것——이것이 괴로군의 생활이다.

괴뢰군에 남편을 빼앗긴 안해와 아버지를 빼앗긴 아이들의 생활은 더 처참하다.

《해방신문》은 이러한 가족들의 참상을 전하면서 괴뢰군에 징집되였다가 사망한 한 청년의 유가족 사남매가 작년 12월 서울 장안에서 문천 걸식하면서 로숙하다가 일시에 동사한 참담한 실례를 인용하였다.

괴뢰군 병사들은 치욕의 《국군》 살이를 극도로 저주하고 있다. 병사들 사이에서 《우로 어깨 보따리 고향 앞으로 갓》하는 말들이 성행하고 있으며 또는

《벼슬도 좋다마는 나는야 싫어
정든땅 언덕 우에 초가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기음을 매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곳을 찾아 가련다》

라는 노래가 류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병들의 그러한 사상과 정서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 기피, 탈주, 의거입북자 대렬의 장성과 군대 내에서의 반미 반 리승만 기운의 앙양은 이러한 정서가 점차 행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값싼 대포'밥

리 승만은 괴뢰군 사용의 유리성을 력설하면서 괴뢰군 1인당 유지비가 미군 1인당 유지비의 25분지 1밖에 들지 않는 것을 자랑하였다.

—나리님! 이건 가장 헐값으로 살 수 있는 무기입니다

박 승히 그림

원한의 노래

신 흥 순

지금 남조선 괴뢰군대 내에 류행되고 있는 반리 승만적 《원한의 노래》들은 실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다.

이 노래들에는 한결 같이 자기들의 쓰라린 《국군》 살이의 치오르는 증오의 감정이 표현되여 있으며 또한 혹심한 고통과 질곡 속에서 하루 바삐 벗어 나려는 지향과 념원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제 그 몇 가지만을 추려서 여기 소개해 보기로 한다.

울려고 내 왔는가 매 맞으려 내 왔는가
꽁부리밥 콩나물 국에 생'이가 박박 갈린다
한 많은 이내 신세 고통스런 이 운명
국군 살이 생지옥을 언제나 벗어나 볼가

이 얼마나 눈물겨운 원한의 노래인가? 《국군》이란 말은 오늘날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생활의 대명사로 되여 있다.

그러므로 《열 두 가지 고생》(十二苦)이라고 하는 노래까지 나오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못 먹으니 배고프고, 헐 벗으니 덜덜 떨고,
전호 파기에 고달프고, 숯 굽기에 잠못자고,
걸핏하면 욕 먹고, 짐승처럼 천대 받고,
직사하게 매 맞고, 죽어라 기압 받고,
제대는 안시키고, 휴가조차 안주고,
몸은 허약해지고, 가슴은 터질 지경이고,

《국군》 사병들의 생활비로는 원낙 적게 배당되는 데다가 웃놈이 떼먹고 중간놈이 가로 채고 아래'놈이 훔쳐 먹고 나니 실지 사병들한테 차례지는 것은 말할 것 없이 비참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국군》의 소위 《군가》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결에 그 가사들이 고쳐지게 마련이다.

《기마병의 노래》

항고를 높이들고 빨리 달리자
우리들은 식사에 용감한 부대
소리를 웨쳐라 취사장 가깝다
닥치는 콩나물 대가리 우리 차리다

《용진가》

양양한 취사장을 바라볼 때에
혈관에 파도치는 원한의 불'길
준다던 소고기는 다 어데 가고
해멀건 된장국에 냄새도 없다
보아라 우리들의 약한 신체를
가슴에 울리는 원한의 기'발

이러한 《군가》 뿐만 아니라 식사 나발 소리까지도 고쳐진다.

밥은 밥은 꽁보리밥 식기 전에 어서 먹어라
총은 총은 총'소리 죽기 전에 도망치거라

사병들은 걸핏하면 기압을 받는다. 훈련 중에 기압 받는 건 보통이고, 약초를 적게 캐여 왔다고 기압, 숯을 잘못 구었다고 기압, 빈 병을 많이 주어 오지 못하였다고 기압, 상관 보고 인사 늦게 했다고 기압, 심지어 걸음씨가 건방지다고 기압이다.

기압의 종류로 쳐도 수십여가지 있다. 우선 《정신봉》이니 《동포의 눈물》이니 또는 《어머니 사랑》이니하는 글'자를 쓴 방망이로 구타하는 《해병빳다》 기압으로부터 《토끼 뜀》 《엎드려 뻗쳐》 《무장 포복 전진》 《젯트기》 《한강 철교》 등등 벼라별 기압이 다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서글픈 노래가 돌고 있다.

고향을 떠나온지 몇몇 해던가
기압을 받은 것도 수천 수만번
오늘도 신끈 끊고 허리띠 없이
구보로 산 고지를 몇고패 쳤네
맥이 빠져 허덕 주저 앉으면
해병 빳다 사정없이 내려를 치네
언제 지은 원쑤라고 이다지 구나
밤'잠을 자다가도 치가 떨리네

그들은 이 지긋지긋한 《국군》 살이를 벗어 나 보려고 무진 애를 쓴다.

야밤에 도망치는 사병도 있고 또는 꾀병으로 몇끼니씩 굶어 우정 병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다리에 총질까지 하여 제대를 기도하기도 한다.

훈련에 지친 몸 자총질해서
경부상을 당하며는 천환짜리다
병원에 입원하면 만환짜리요
그러다가 제대되면 팔자 고친다

오늘날 쏘련의 대륙간 탄도 로케트가 성공되여 인공 지구 위성까지 떠 돌고 있는 이 위대한 시대에 아직도 전쟁을 선동하는 일은 어리석은 잠'고대에 불과하다는 것 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미제와 리 승만 도배들이 제아무리 《북진》 소동을 일으켜 봤댔자 날이 갈수록 《국군》 사병들 속에는 더욱 더 전쟁을 반대하는 염전 기세가 높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

키다리 양캐들은 전쟁만 떠버리고
다 늙은 리서방은 자고 깨면 북진일세
언제든지 북진 명령 내려만 봐라
엠•완총 거꾸로 메고 부산으로 갈테다!

이 《원한의 노래》들은 새록새록 생기어 《국군》 부대에서 부대로 사단에서 사단으로 자꾸자꾸 흘러 퍼지고 있다.

(의거 입북한 〈국군〉들과의 담화 수첩에서)

송 용남 그림

조선인민군의 유쾌한 생활
-고대하던 인민군 창건10주년 이니 잘 장식 해야지
경 2.8절 축
-우리 마을 모습이 아주 달라 졌군요 -이게다 당과 정부의 옳바른 지도의 덕택 이라 네
-아니 인공위성에 주려고 가져 왔나 -조국의 하늘에도 꽃다발을 드려야지
-내가 먼저 온줄 만 알았더니 인민군 후방가족 원호 사업에 많이들 왔군
-야 영사가 또 왔구 -이번 영도 자미 있겠이군
-어디 나도 좀 보자 김동무의 누이 동생이 모범로동자 이라지.
-이만하면 이번 경연 대회에서 입상은 올데 갈데 없네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가 높을수록 초소에 서 있는 우리들의 긍지감도 높다네
신입병사
위문품
-야 우리의 우등 사수를 열렬히 축하 하세
벽보
---달로 떠날 날은 더욱 가까와 오고 있다---
도서실
만 있어 좀 듣고 보자
-엣다 백발 백중의 명 사수의 솜씨를 봐라
-멋지게 돌다 보니 만년필이 때굴---
-허- 그만 면 얌전한 시가 됐어
-부쩍 들어라 배지개를 들어라.
군중교양사업실
-우리 부대 식당의 음식맛은 그저 그만이야
리 영춘 그림

사관 학교 동창회에서

최 영근 그림

—조선 전쟁에 참가하구도 사지가 온전하니 천만 다행이군요
—갈비' 대는 두대 부러졌지만 살아 온게 천만 다행이지요

주머니는 이렇게 털린다

박 노 을

고마운 마음씨

《덕쇠야 기여쿠 그 몹쓸 국군엘 너를 보내다니 으응 으응…》 어버이들의 울음'보는 터지는 데 기차는 빽 고동을 친다.

《옛다. 요거라두 넣고 가거라 기별이라도 전할라치면 돈이 있어야지》

《아버지 고만 두세요. 돈이 있으면 병석에 누운 어머니 약값에 쓰세요》 아들은 그 돈을 받을 대신 그 돈이 어데서 났을까 그것부터가 자못 의심스러울 정도다. 마지막 가장집물을 팔아 들고 나온 몇푼의 돈이 그 아버지에게 쥐여진 것이다.

《산 입에 차마 거미줄 쓸겠니 어서 넣고 가라》 아버지가 굳이 넣어 준 몇푼의 돈이 이렇게 떠나는 아들의 손에 쥐여진 것이다.

쿵쿵쿵 기차는 달린다.

창문도 없는 화물 도리꼬에 실리운 젊은이들이 처음엔 훈련소로 끌리워 간다. 론산으로 제주도로——

헤여질 때 애타게 울던 어버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 외양'간 같이 더러워 앉을 곳조차 없는 차'간에서 몸둘 곳이 없는데랴! 이럴줄 알았더면 가마니나 벼'집이라도 가지고 탈 것을——그들은 이런 당면한 생각에 사로잡힌다.

이때다. 가마니를 한아름 안은 졸장교가 나타났다.

《옛다 이놈들아 깔고 앉어》

《네, 고맙습니다.》 고마운 그 마음씨에 허리를 숙이고 가마니를 깔고 앉아 이제야 안도의 숨을 쉬고 젊은이들은 또다시 서글픈 생각에 잠기려는데

《이자식아 뻔뻔히 그대로 있어?》

가마니를 주고 난 장교의 벽력 같은 고함 소리가 귀'청을 짼다.

《예》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의심스러운 눈'방울들이 크게 떠진다.

《그래 공짜루 깔구 앉을테야?》

돈을 내라고 버티고 선 장교의 손'바닥이 젊은이들의 눈앞으로 닥아오고 있다.

그늘 밑의 떡 장사

훈련소 훈련장에 폭양이 내려 쪼인다. 뜀박질은 몇십 바퀴나 돌았는가 기운이 지치고 배는 고플대로 고파온다.

훈련 장교는 호각을 불어 으슥한 모퉁이로 훈련생들을 끌고 간다.

《에또——오늘은 내 한턱을 단단히 쓰지 이제부터 휴식을 준단 말이다. 멀리는 가지말고 이 부근에서 쉬란 말야 무엇을 사 먹던지 그것도 자유고…》

얼마나 고마우랴! 젊은이들은 흐터져 쓰러져 눕기도 하고 장교의 말대로 무엇을 사 먹을까 고픈 배를 휘어 잡고 장사치를 찾고도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이 깊은 훈련장 안에 장사치가 있을 리는 만무한 리치여서 그들은 구미만 도꾸고 있을 뿐이다.

그때다. 때마침 나타나는 떡'장사 한 분! 제법 꼬리치마까지 즐즐 땅'바닥에 끌며 젊은 안악네가 떡함지를 이고 나무 그늘 밑에 나타난 것이 아니냐?

떡은 순식간에 다 팔린다.

《여보 내 계교가 어떻소? 래일도 훈련생들을 그리로 끌고 갈테니 떡함지를 들고 나오란 말요. 떡개를 더 작게 해도 좋으니》

저녁에 녀편네에게 주는 장교의 훈시로 보아 떡'장사의 장본인이 누구인가는 얄법한 일이고——

그러나 훈련생들의 주머니가 오래 갈리는 없다.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는 그 신세는 너무나 빨리 당도한 것이다. 떡함지가 그대로 있다. 그럴 때면 장교의 볼따구니가 부풀어 오른다.

《모엿! 훈련 개시 구보로 뛰엿!》

떡함지가 그대로 있는 날은 쉬엿의 구령은 내리지 않고 해가 저문다.

고향으로의 편지

병실에 전령이 내린다.

《에—또 오늘'밤은 편지 쓰는 날로 정했단 말야 대대장께서 특별 배려를 한 것인데 오늘'밤은 고향 부모님들께 편지를 쓸 것!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써도 좋으니 마음 놓고 쓰란 말야 당번은 래일 아침 한명도 빠짐없이 편지를 거두어 올 것!》

이렇게 편지는 씌여지고 스탐프가 찍히지 않은 우표들이 봉투에 정성스럽게 붙어 각기 사병들의 고향으로 갈 것을 념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날'밤 대대장의 련락병은 절대 비밀 엄수의 명령을 받아 가며 사병들의 꿈을 갈기갈기 째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우표를 봉투에서 떼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날——국군 장교의 명령임에랴 우편국도 어쩌랴 스탐프가 찍히지 않은 우표는 현금으로 바뀌여 장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잃어진 모포

어느 중대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훈련을 하고 돌아온 병실——저녁 취침의 나발을 분다. 자려고 보니 없어진 모포가 한두장이 아니다. 어찌된 일일가? 모포는 행방이 없다.

직일 당번의 보고를 접하고 중대장이 병실로 뛰어든다.

《이놈들아 네놈들의 눈을 빼 가면 아파들 하겠지 그러나 모포 한장도 《국가》의 물품이란 걸 몰라 한두장을 잃었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사다 메꿔야 해 그러지 않으면 무리 기압을 내릴테다》

그러지 않어두 꽁치 기압이 날려올 판인지라 사병들 돈을 모아 사 올 것을 결의하여 나선다.

주머니들을 털어 없어진 모포를 충당할 밖에

주머니를 털어 간신히 모여진 돈이 중대장에게로 간다.

저녁에 《중대장님》께서 손수 사오신 모포가 병실로 운반되여 온다.

사병들의 눈이 둥그래 속삭이는 말 《여봐! 이것이 어찌된 셈이야 이 모포는 틀림 없이 내 것이였네 이 구퉁이에 피가 묻었던 흔적이 틀림 없거던》

내려 갈수록 커지는 화푸리

백 인균 그림

지옥살이

《국군》 3사단 25사 72련대 1대대 1중대 사병들은 숯을 굽기 위한 벌목 작업에 동원되였다. 1소대 2등병 김 명환은 몇대 찍지 못하고 허기증이 나서 주저 앉았다. 돌아보니 다른 사병들도 물러 앉아 있다.

급식비는 련대장 대대장 중대장으로 내려 오면서 서로 뜯어 먹고 잘라 먹고 해서 사병들에게는 언제나 멀건 콩나물국만이 차례졌고, 어떻게 되어 부대에 고기가 조금 공급되면 장교들이 술추렴과 상관 접대에 떼여가 오래간만에 한번씩 주는 고기국도 사병들이 《돈도탕》 (돼지가 건너간 물)이니 《돈욕탕》 (돼지가 목욕한 물)이니 하고 야유할 정도로 겨우 냄새만 나는 것이였다。

이렇게 사병들을 먹이고도 장교들은 《48주간 훈련》이요, 《고지 점령 훈련》이요 하고 매일 고된 훈련에 내몰았고 《북한에서 침범》을 떠벌이면서 방공호 굴설 작업과 진지 굴설에 동원시켰다.

벌목 작업이 끝나 며칠 동안 고지 점령 훈련이 계속되더니 그 다음엔 사병들을 탄광에 내몰았다.

《후생 사업》이라고 하면서 사병들에게 석탄을 캐우지만 실은 뒤'구멍으로 장교들이 팔아 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병들은 기압이 무서워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날 명환은 고열이 나며 옆구리가 몹씨 결리기 시작하였다. 륵막염에 걸린 것이다.

그래 탄광에 못나가고 누워 있는데 중대장이 병실로 들어왔다.

《어째 누었어?》

명환은 안까님을 써 몸을 일으켰다.

《옆구리가 몹시 결리면서 열이 나서…》

《거짓말 말아! 네놈이 꾀병을 하는줄 모를줄 알아?!》

《아닙니다…》

《닥쳐!! 이 자식이 아직 봉둥이 맛을 덜 봤어, 일어나!》

중대장은 구석에 있는 야전삽을 걷어쥐더니 명환의 등과 다리를 사정 없이 내려쳤다. 명환은 그 자리에 쓸어졌다.

정신이 들었을 때 명환은 아픔 때문에 몸을 옴짝할 수 없었다. 어깨와 다리가 사방 터지고 멍이 쳤다. 그는 자기가 죽지 않고 견디여 낸 것이 기적 같았다. 사실 전에도 다리 부러진 것을 뻔히 보면서 훈련 안나간다고 때려서 끝내 그 사병이 죽은 일까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생지옥 같은 《국군》 생활이 몸서리가 났다. 부대를 탈주하거나 북조선으로 입북한 사병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명환이도 입북하고 싶은 충동이 부쩍부쩍 났지만 자기의 입북 때문에 집에 있는 어머니가 욕을 볼 것을 생각하여 뛰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 그는 통일될 날과 제대될 날만 하루를 백년 같이 고대하고 있으나 제대도 시켜 주지 않는다.

제대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였다. 요 며칠 전에도 „빽" 이 있는 사병들은 제대되여 고향으로 갔다 이렇게 《빽》만 있으면 소위 《귀휴병제》에 의해서 인원상 필요라는 구실로 기한 전에도 제대될 수 있다.

휴가에도"빽„ 제대에도 "빽„ 얼마나 "빽„이 세도가 있었든지 어느 한 사병은 죽으면서 《빽!》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명환이가 이렇게 오금을 움직일 수 없이 몸져 누웠으나 중대장은 그를 입원도 시켜 주지 않았다. 그래서 동무들이 밥을 갖다 주며 그를 간호했다.

매끼 동무들이 그에게 밥을 가져 왔지만 그는 먹지 못하고 머리맡에 밀어 놓기만 했다.

밥그릇을 바라보는 그는 고향의 어머니 생각이 났다.

명환은 얼마 전에 휴가를 갔었다. 휴가 동안에 주는 쌀은 중대장이 잘라 먹어 명환은 휴가 가면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려고 상관들 몰래 조금씩 근근히 모아 두었던 건빵 몇개를 배낭에 넣어가지고 고향으로 떠났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초조한 마음으로 부엌문에 친 가마니를 제끼고 들어선즉 어머니는 부엌'바닥에서 조금한 쩡개비에다 도토리죽을 끓이며 앉아 졸고 있다. 끼니를 어떻게 지냈는지 얼굴이 퉁퉁 부었다.

큰 아들을 지난 전쟁에 끌어 내다 죽이고 소경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있던 작은 아들마저 《국군》에 훌쳐내가 50이 넘은 어머니가 혼자 계시지만 괴뢰정부에서는 조금도 돌봐 주지 않고 뺏아 갈 것은 다 뺏아 갔다. 그래서 오금도 제대로 못쓰는 어머니가 산발뙈기를 일구며 봄철 보리'고개와 여름철 나락고개에는 풀뿌리와 나무껍질, 도토리 죽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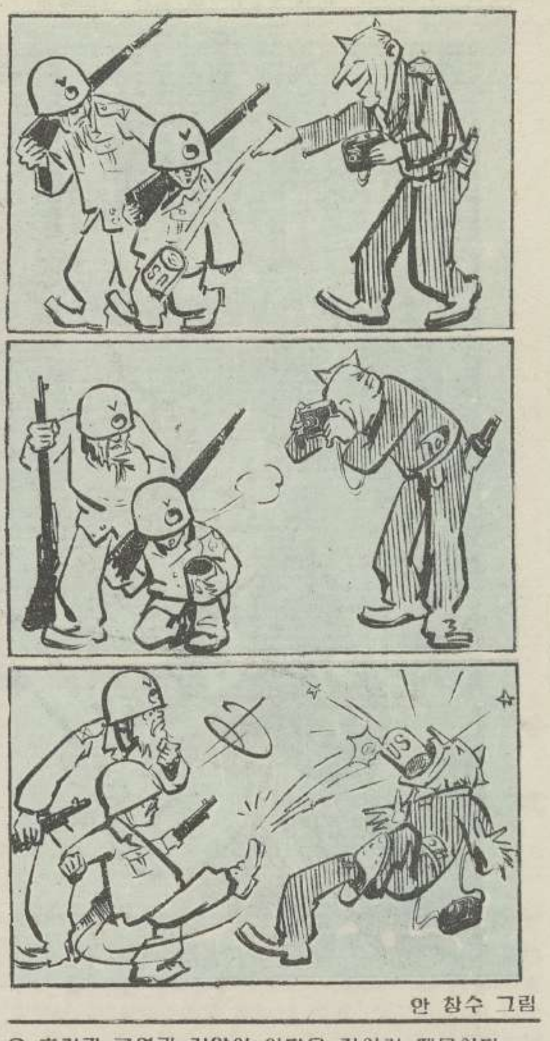
그때 명환은 울타리 틈으로 군수의 아버지인 지주 김첨지의 개가 밥을 먹는 것을 보았다. 비록 먹다 남은 밥이기는 하나 그 개는 하얀 쌀밥을 먹고 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명환은 배밑에서 무엇인가 불쑥 치밀어 올랐다.

《개가 쌀밥을 먹는데!》

그는 두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명환은 지금 그때 얼굴이 퉁퉁 부어서 도토리죽을 끓이며 졸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 오른 것이다.

명환은 륵막염에다 상처까지 겹쳐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입원을 바라지 않았다. 입원하면 비록 상처의 아픔으로 인한 고통은 좀 덜어질 것이나 나아서 부대에 돌아오면 다른 고통 즉 힘에 겨운 훈련과 고역과 기압이 잇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 창수 그림

그래 명환은 차라리 병이 콱 더해 죽었으면 했지만 죽지도 않는다.

상처와 륵막염의 고통은 그를 점점 더 괴롭혔다.

× ×

이틀날 부대에는 명환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사병들은 그의 곁에서 먹다 남은 독약 봉지를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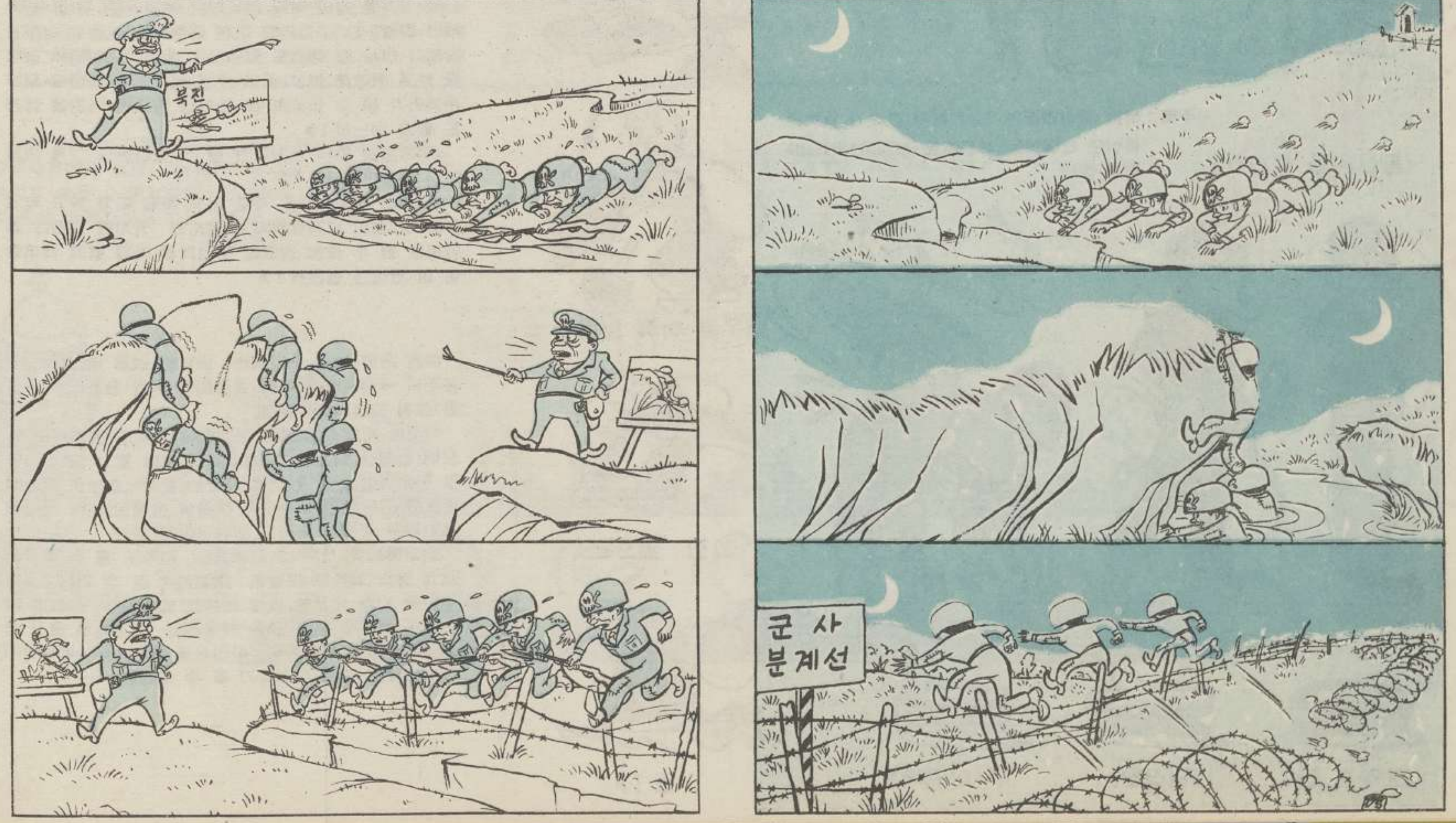
그러나 명환이가 죽은 이틀날 중대장은 사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제 명환이의 시체를 해부해 본 결과 급사한 원인은 륵막염의 급격한 악화였다고 한다.…》

리 운 복

원 광수 그림

북으로 갔다



미제의 조종하의 일본 수상 기시는 부당하게 강금시킨 오무라 수용소와 하마마쯔 수용소의 재일 조선 동포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비법적으로 리 승만 역도에게 넘겨 주려고 하고 있다.

교형리와의 흥정

최 영근 그림

류행어 만화사전

홍 종호 그림

《사단장 표창장보다 건빵 한개가 낫다》

《제 7보급품》

《왕십리를 대라!!》

주해 : 서울 왕십리에는 오물 집적 장소가 있는바 괴뢰군 내에서는 엉뎅이를 가르켜《왕십리》라고 한다.

《우로 어깨 보따리

고향 앞으로

《도레미 탕》 《인삼탕》 《나이롱국》 갔!》

쏘가리의 설교

옛날 어느 맑은 개울에 수십만 수백만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다. 송사리며 모래무치며 버들치며 기타 가지각색 물'고기들이………그런데 이 개울에 사는 잔고기들에게는 고통과 공포와 비극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였다. 이 개울에는 수는 많지 않으나 무서운 쏘가리들이 살고 있었다. 쏘가리들이 어찌나 잔인하고 탐욕스럽게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 먹는지 잔고기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잔고기들이 회의를 열었다. 어떻거면 쏘가리의 그 무서운 이'발을 모면할 수 있을까고――회의에서 항의하기 위해 대표를 뽑아 쏘가리한테 보내가로 결정했다.

대표로 뽑힌 송사리와 모래무치와 버들치는 깊은 소로 찾아 갔다. 이 소밑의 바위 틈에 쏘가리들은 살고 있었다. 송사리가 쏘가리더러 먼저 말했다.

《우리는 이 개울에 사는 잔고기들을 대표하여 당신한테 항의하러 왔소이다.》

모래무치가 말을 이었다.

《당신네들이 매일 같이 우리들을 수백 수천 마리씩 잡아 먹고 있으니, 잡아 먹히는 고기들의 신세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은 살아 남은 고기들도 언제 죽을지를 몰라 잠시도 마음 편한 틈이 없소이다.》

버들치도 말했다.

《도합 몇마리 안되는 당신네들, 쏘가리들 때문에 이 개울 전체의 물'고기들이 하루도 기를 펴고 살 수 없는 형편이라, 우리들은 회의를 열고 서로 의론한 결과 앞으로 쏘가리들이 잔고기를 잡아 먹지 않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강으로 이사해 줍시사 하고, 당신들에게 요구하기로 결정했소이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쏘가리가 대답했다.

《잔고기를 잡아 먹지 않은다면 쏘가리를 어찌 쏘가리라 하겠느냐?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드래도 매한가질테니 이사 갈 생각도 없구나. 지금 너희들의 항의를 듣고 생각해 보니 좋은 수가 있다. 너희들도 모두 쏘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그러면 먹히울 념려도 없지 않느냐!》

《우리들도 모두 쏘가리가 될 수 있다하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오니까?》

《너희들 잔고기들도 서로 서로 물고 뜯고 잡아 먹고 하여 이'발이 날카로워지고 살지고 커지면 그때는 쏘가리로 될 수 있을 터이니 우리더러 불평 말고 너희들의 이'발이나 길러라!》

× ×

이런 속임 수는 옛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착취 계급들이 이런 쏘가리의 설교를 즐겨 늘여 놓군 한다.

착취에 시달린 로동자 농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며 언제나 실업과 아사의 위협 앞에 떨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자라는 근로 인민의 불평과 분노를 기만으로 무마하기 위하여 미국의 지배 계급은 쏘가리의 설교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누구나 자본가나 지주로 될 수 있으며 어제'날의 목동도 오늘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그러니까 지배 계급에 대해 불평을 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착취해 먹는 법을 배우라고―서로서로 물고 뜯고 잡아 먹어 착취자의 잔인성과 탐욕성을 배우라고 그러면 스스로도 착취자가 될 수 있다고………

끝나지 않은 사건

유 항 림

로빈슨 로인이 수십년 동안 경영해 오는 주점은 영국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술'집이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아주 떠들석하고 소란스러운 곳으로 되어 버렸다. 부근에 영국 주둔 미 공군 비행장이 생긴 후로 미군 장교들이 매일 같이 모여 들었기 때문이다.

이 술'집이 소란스러워짐에 따라 이웃 사람들은 얼굴을 찌프리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부근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나 로빈슨 로인은 해롭지 않게 생각했다. 의자나 테블이 부서지고 그릇들이 깨지는 일쯤은 보통이고 날마다 창유리들을 깨뜨리는 소동 따위는 계속되였지만, 그래도 이 한적한 시골에서 그만큼 흥정세가 있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로빈슨 로인에게는 차츰 이상스러운 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쫀 중위란 녀석은 아무래도 정상적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

《어째서요?》

《술만 한잔 들어가면 당장에 횡포해지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술이 취해서는 그릇을 부스며 지랄을 하지 않는 일이란 한번도 없으니까.》

《양키들 치고 그런 버릇이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안야, 그 쫀 중위는 아무래두 정상적이라구 할 수 없어.》

또 어떤 날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중얼 거리기도 했다.

《데니쯔 대위란 놈은 아무래도 제 정신 가진 놈이라곤 할 수 없지. 젊은 녀자만 보면 당장에 눈알이 달라져서는 큥큥거리며 냄새를 맡거든! 일전에만해도 녀자 문제로 권총까지 빼 들며 소동을 일으키는 걸 마누라도 보지 않았소?》

《이 수년 동안에 양키들의 그런 꼴을 뭐 한두번만 보았다구 그러우?》

《안야, 그놈은 확실히 미치광이야.》

또 어떤 때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며 신음하기도 했다.

《비킨스 중위란 놈을 좀 보라구. 얼마나 파렴치한 놈인가. 사람의 탈을 쓰고서야 그렇게 렴치 없을 수가 있겠는가 말이지. 우리 술'값을 잘라 먹는 것 쯤은 말할 것도 없구, 걸핏하면 훔치거든! 군대 물품은 말할 것도 없구 무엇이고 닥치는대로 훔치는데, 훔치다가 들키면 그저 히죽 웃을 뿐이거든! 도적놈 치고도 그렇게 렴치 없는 도적놈은 처음이라니까. 아무래도 그놈은 사람의 정신을 가진 것 같지 않아!》

로빈슨 로인은 매일 같이 이렇게 자기네 단골 손님들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는 것이였다. 그래서는 밤에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새우군 했고, 때로 잠이 들었는가 하면 무엇엔가 놀래서 고함을 지르며 쏘스라쳐 깨는 것이 보통 일로 되였다.

마누라는 처음 얼마 동안은 영문을 몰라서 령감의 넋두리를 웃기도 했었지만, 어느날 아침에 령감이 무엇 때문에 그처럼 항상 불안에 잠기게 되였는가를 안 다음부터는 마누라 자신에게서도 령감과 같은 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로빈슨 로인네 주점에 드나드는 단골 손님들인 미공군 장교들은 원자탄과 수소탄을 싣고 매일 영국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비행사들이라는 것을 늙은 부부는 알았던 것이다.

수년 동안 지내오며 관찰한 바, 그자들이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판단과 량심을 가진 자들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로빈슨 부부였다. 사람보다 짐승에 더 가까운 이자들이 그 위험천만한 화물을 싣고 장창 자기들의 머리 우를 날고 있다는 데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면 볼수록 놈들은 하나 같이 반 미치광이들로만 보였다. 이 반 미치광이들이 그 위험스러운 물건을 싣고 날다가 아무 실수도 없으리라고 믿을 수인들 있으며 그 반 미치광이들이 갑자기 발광적인 충동을 느껴 그 어떤 짓을 하지 않으라고 믿을 수인들 있으랴!

로빈슨 부부는 차츰 더 수척해 갔다.

그러던 중에 어느날 로빈슨 로인의 주점은 드디여 문을 닫은채 다시는 열지 못하게 되였고 늙은 부부는 정신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천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하고 있는 자들을 정신 병원에 감금하는 날이 올 때까지 이 사건은 계속되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환영 못 받는 집

서구라파 국가들은 자멸을 의미하는 로케트 기지 설치의 권리를 서로 《양보》 하려고 애쓰고 있다.

—저 집으로나 가보시지요

조 병식 그림

나타나지 않은 회의 참가자

나토 회의 참가자들은 불가닌이 나토 참가국 정부 수뇌자들에게 보낸 서한들에 제시된 문제들을 토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리하여 쏘련은 나타나지 않은 참가자로서 나토 회의에 참가 하였다.

—그로미꼬—

최 영근 그림

청진시 제5 의류품 생산 판매 협동 조합을 비롯한 몇몇 조합들에서는 최근까지도 일부 상품을 제정된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 하면서 부당한 리득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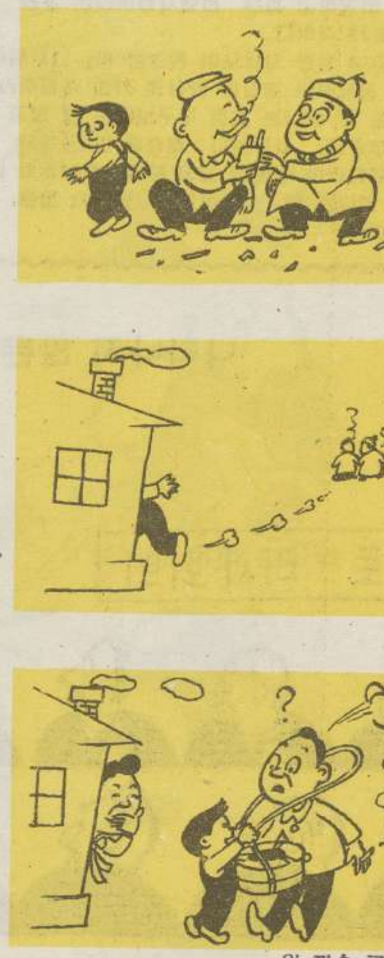
눈치를 보아 가며

상업부에서 왔을 때는… 손님이 왔을 때는…

송 용남 그림

좋은 수가 있다

원 광수 그림



원 광수 그림

록음실

낯 익어진 자물쇠

황해 북도 곡산군에 있는 책방에도 다른 책방들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새로운 책들이 도착된다. 날마다 오는 이 책들은 물론 서점에서 팔기도 하지만 많은 책들은 군립 도서관과 각 선전실로 가져간다. 독서가들은 날마다 새로운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나 선전실을 자기집처럼 드나들며 책을 빌려 읽는다.

오늘도 많은 새로운 책들을 곡산 군립 도서관으로 가져 갔다는 소식을 듣고 독서가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달려갔다. 그런데 정문에는 난데 없이 커다란 잠을쇠가 잠겨 있어 모처럼 빌리려던 책을 빌리지 못하고 그저 되돌아 오고 말았다. 그후 몇번을 또 찾아 갔으나 관장 동무는 열흘 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열흘 후에 가면은 또 열흘 후…………

"갓바치 래일 모레" 라더니 관장 동무는 석달 열흘을 두고 열흘 후에 오라고만 하신다. 벌써 열 대여섯 번이나 찾아 가는 동안에 이제는 관장 동무의 얼굴 마자 히미하게 잊어버릴 지경이 되였지만 자물쇠만은 점점 낯이 익어졌다.

이런 일은 함경 남도 수동군에서도 있었다. 수동 군립 도서관에서 빌려 온 책은 반환할 곳이 없어 "말 못하는 자물쇠야 책이나 받아다오" 코·노래를 부르고 되돌아 가는 독서가들이 있다.

확실히 식료품은 아닌데

하늘색으로 말쑥하게 칠한 식료품 차가 국영 식료품 상점에 와 닿았다. 애들은 "빵차"가 왔다고 떨러 싸고 야단 법석이다. 운전대에서 한 사람이 내려오고 상점에서도 사람들이 마중 나왔다. 빵, 과자, 비스켓트, 카스테라, 우유 등등 차례 차례로 내려 놓고는 차는 윙하고 달아난다.

《얘야 참 깨끗하지!》

《식료품인데 뭐!》 이처럼 식료품은 깨끗하게 건사해야 하며 운반하는 차도 아주 깨끗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애들에게도 많은 교양이 되였다. 더우기 알뜰하게 살림을 꾸며 나아가는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그 보기만 해도 위생적인 식료품 차가 저으기 마음에 들었고 볼때마다 기분이 산뜻해지는 것 같았다.

수개월이 지나갔다. 뒤'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식료품 차 안에는 식료품 아닌 사람이 몇명 왁자 지껄대고 깨끗하던 자리는 온통 진흙으로 매닥질을 한 것을 보게된다. 요사이 거리에서 가끔 이런 식료품 차를 만나게 되는 것은 불쾌한 일이며 몰골도 사납다. 또 전에는 애들에게도 많은 교양이 되였지만 지금은 그렇치도 못하다.

탄 사람 자신들은 자기도 식료품이라고 생각해서 식료품 간에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를 식료품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귀복이 어머니

동사무소에서 배급 받은 탄을 몇집에서 같이 실어다 노났다. 그런데 남보다 먼저 다 때 버린 귀복이 어머니는 다소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다 때면 또 생길 테이지—》 하는 생각이 걱정보다 늘 앞서서 마음 한 구석이 든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반 총회에서도 녀맹 총회에서도 석탄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가르켜 주었다. 그럴 때마다 귀복이 어머니는 가슴이 찔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럴 뜻한 리유를 장황하게 늘여 놓으면서 어쨌든 다른 집보다 탄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증명 하려고 애쓰는 것이였다. 그런데 어느날 한꺼번에 2톤의 탄을 실어 왔다. 일주일이 넘어도 탄'더미는 부려 놓은 그대로—오고 가는 사람의 신'바닥에 묻혀 나르고, 비가 와서 흘러 내리고, 눈녹일 때 같이 녹아 내리고——그래도 귀복이 어머니는 탄을 들이려고는 생각도 않고 《우리 집은 우'풍이 세서 탄이 헤퍼…》 하고 입'버릇 처럼 외우는 것이다. 나는 어느날 귀복이네 집엘 가게 되였다. 바늘 구멍으로도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는 데 창문은 뚫린채 그대로, 드나드는 문의 틈새가 엉성하게 티이였으니 우'풍이 셀수 밖에……" 그래도 귀복이 어머니는 탄하고 씨름만 한다. 그러면서도 귀복이 어머니는 가끔 《왜 이렇게 탄이 빨리 없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힘 내기

탈곡이 한창인 때 때마침 황해 남도 신원군 건재 상점에 탈곡기 25대가 도착되였다. 얼마나 기다렸던 탈곡기냐고 농민들은 기뻐했고 점장 동무는 지체 할 세라 미리 짜 놓았던 배정 계획에 의해서 각 협동 조합에 "탈곡기 가져 가라"는 통지를 띄웠다. 각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인수하러 모여왔다.

그런데, 원래 탈곡기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었는데?……

하나 하나 차례로 포장을 풀던 점장 동무는 고개만 끼우뚱, 점장 동무와 인수하러 온 조합원들은 탈곡기 25대를 하나 하나 검사 하였으나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파손되여 있었다. 부득이 인수하려 온 조합원들이 바쁜 걸음으로 되 돌아갔다.

점장 동무가 출발지인 송화로부터 더듬어 보니 그것은 사리원역 중계장 일'군들이 중계 시에 힘내기를 한 것이 원인이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저이들끼리 힘 내기가 시작되였었으나 힘 내기 기세가 와짝 오르자 저이들끼리는 부족하여 탈곡기하고 힘내기를 한 것이 화근이였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힘 내기는 자랑 할만한 것도 못되는듯 싶다.

순천 역 대합실

기차 려행을 하는 손님들이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한 시간 중의 하나다. 더우기 요사이 같은 추위에 순천 역 대합실 처럼 손님들을 푸대접하는 데서는 뜀뛰기, 답보 등등 갖은 운동이 버러지는게 보통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순천 역장 동지는 깜짝 놀라서 《우리 역에서 손님들을 푸대접 한다구요? 우리는 손님들을 위해서 대합실에 대한 월동 준비를 얼마나 미리부터 준비 했는가를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을 고쳐 달고 페치카를 쌓고 날마다 탄을 아끼지 않고 불을 때고 있는데——》

역장 동지의 말씀대로 겨울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은 틀림이 없다. 지금도 페치카에 불을 그대로 달아 놓고 때고 있는 것도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 대합실을 거쳐 간 손님들은 왜 《밑없는 독에 물 채우기》라고들 할까요. 문을 고쳐 단 것은 바람을 막기 위해서인데…… 숫한 석탄을 때는 것보다 자그마한 노력을 들이면 될 것을 그 노력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쳐 단 문은 반 남아 누어서 숫한 사람을 춥게 하고 있다.

김 상 애

순서가 바뀌였다

청진시 지방 건설 위원회는 시내 제 13 중학교 교사 건설에서 전기 가설을 예견치 않고 시공한 결과 적지 않은 랑비를 가져 왔으며 건물에 손상을 주었다.

송 용남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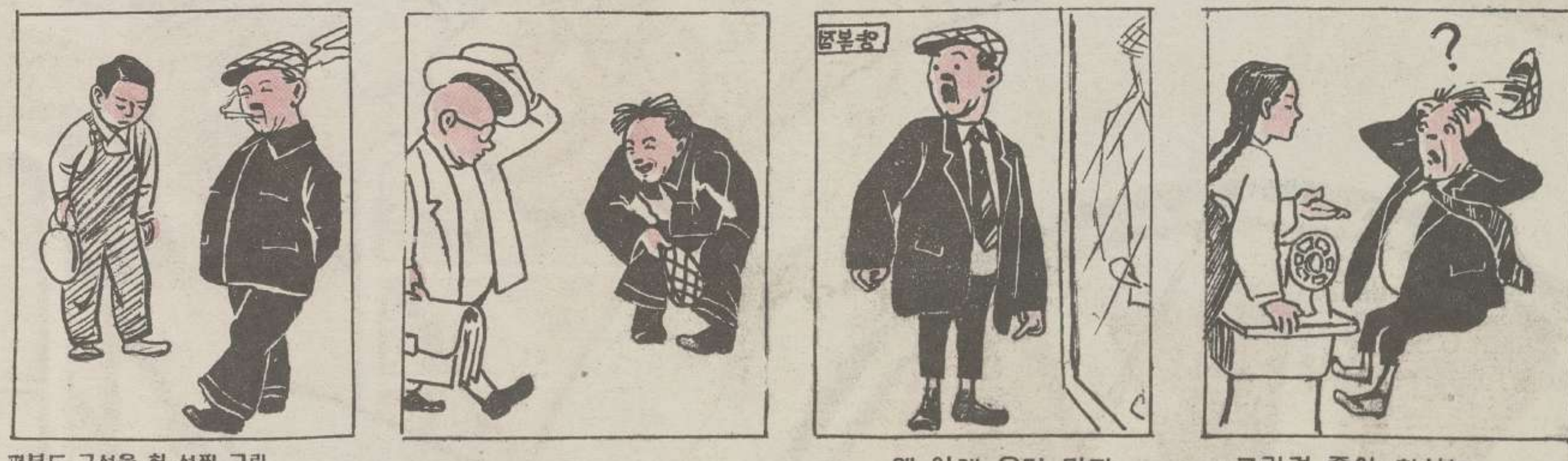
이런 현상은 고칩시다

허 능택 그림

실행이 따르지 못한 조치

조 명식 그림

상후 하박



평북도 구성읍 허 성필 그림

왜 아래 우가 맞지 않게 지였소?

그런걸 좋아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활 살 사 인쇄 1958. 2. 10 ㄱ— 72357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8. 2. 15 값(50원)

믿음직한 력사의 타수

박 승히 그림

자본주의: —가는 방향이 내 마음에 맞지 않소

평 화: —가는 방향은 벌써 결정되였소 싫

으면 물'속으로나 들어 가려오

8 34 ЗВАЛЬСАЛЬ
ПЭК Н
УЛ.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НОТА